무인 아이스크림 할인매장 수가 급증하고 있다. 전국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매장 수는 2017년 880개에서 2018년 1810개로 1000여개가 증가하더니 2021년에는 4000개로 추정되고 있다. (빙과업계 추정치)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매장은 무인으로 운영되어 인건비가 들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이다.

무인 점포가 늘어남에 따라 점포 내 금품을 노리는 절도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무인 매장의 경우 24시간 운영하기 때문에 인적이 드문 밤에 범행을 저지른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21년 7월부터 9월 말까지 3개월 동안 경찰은 전국에서 무인 점포 대상 절도 사건에 대해 605명을 검거했다.

지능형 CCTV는 단순히 감시하는 단계를 넘어서 이상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알리는 역할까지 해낸다. 이 CCTV는 감시, 보안, 산업, 안전, 교통 등에 사용되고 있다. 한 업체 괸계자는 “담벼락 등에 학생들이 모여 있을 때 지능형 CCTV는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이를 더 주의깊게 관찰하는 역할을 하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쓰레기 불법 투기 등을 감시하는 데에도 이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렇듯 지능형 CCTV는 인공지능을 통해 이상여부를 판단하여 알려주기 때문에 감시하는 인력을 줄일 수 있어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고 있다.

본 프로젝트는 CCTV를 감시하는 인력을 추가하기엔 부담이 될 만한 작은 규모의 점포, 카드로 인식하지 않고 들어가는 무인 점포(아이스크림 할인매장, 무인 카페, 무인 세탁소)를 주 타겟으로 설정한다. 해당 점포에서의 절도행위를 발견 즉시 알리고 경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출처: [이현정 기자, “1분 거리에 3개…’무인 아이스크림 할인매장’ 지금 창업해도 되나?”](https://economist.co.kr/2021/07/03/industry/distribution/20210703101300245.html)

[박준영 기자, “늘어난 무인점포…도난 등 범죄도 증가”](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361288)

[우현기 기자, “무인점포 늘어가는데 보안은 뻥 뚫려…절도범 기승](http://m.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_mob.do?publishId=000000185550)

[김동원 기자, “24시간 우리를 지켜주는 AI가 있다?”… 일상에 녹아든 지능형 CCTV](http://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0341)